

탈식민화의 신성한 사명과 '양공주'의 섹슈얼리티

김은하

탈식민화의 신성한 사명과 '양공주'의 섹슈얼리티

김은하

국문초록

여성의 젠더와 섹슈얼리티는 가부장적인 민족 서사 속에서 남성이 정치적 대표성을 가진 주체로 표상되는 가운데 의미를 얻어왔다. 민족 서사는 종종 여성을 회복되어야 할 성스러운 민족의 딸인 어머니로, 제국주의에 의해 더럽혀진 조국으로 은유화하는 경향이 있다. 성스럽거나 더럽혀졌거나 간에 민족의 역사가 기입되는 공간이 된 육체는 자신의 언어를 강탈당할 수밖에 없다.

민족 이야기가 희생자로서의 어머니나 누이의 육체에 민족의 현실을 기외하던 반식은 전후 개발독재와 유신체제기에 오면 일정한 변화를 보인다. '양공주'는 1960-70년대의 개발독재기 민족주의 서사에서 민족의 식민화된 현실을 환기시키는 표상으로 위치지어진다. 어머니나 누이가 아닌, 서구화와 근대성의 표상인 '양공주'로 이동된 시선은 서구에 깊이 매혹된 국가를 부인하고, 경제적 풍요로 인한 관능적 성과 무질서한 자유의 상상력을 억압함으로써 장애물없이 질주하려는 권력의 기획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 시기 발표된 소설에서 양공주의 섹슈얼리티는 외래적인 것의 침투로 인해 토착적인 것의 고정된 경계의 붕괴, 뒤섞임에 대한 공포를 상징한다. 또한 '양공주'의 섹슈얼리티는 수치심, 분노, 고통, 부끄러움, 무력감과 같은 정서의 과잉상태로 표현된 남성의 균열된 주체성이 봉합되는 매개이다. 그런데 강석경의 「밤과 요람」(83), 「낮과 꿈」(89)은 온갖 물신으로 치장된 여성의 육체와 더욱더 비천한 여성 섹슈얼리티라는 함의를 벗어나 '양공주'를 제국주의적인 군사 매춘과 이

에 공모하는 신식민지의 가부장적 질서에 의해 여성들이 이중으로 착취받고 재식민화되는 존재로 포착하고 있어 의의가 있다.

부정적인 여성이 대체로 성적으로 각성된 여성으로 표상되고, 남성 주체성의 결손됨과 회복하기가 여성의 성적 주체성에 대한 부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개발독재기 문학의 특징이다. 민족 이야기 속에 재현된 '양공주'의 섹슈얼리티는 탈식민화가 국가 총위에서 작동했던 개발독재기 문학의 가부장성에 대한 연구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 핵심어 : 양공주, 섹슈얼리티, 민족주의 서사

1. 시작하는 글

여성은 자기동일적 주체로 상정되는 남성과 남성성의 반대인 열등성의 지표 속에 종속되어 왔다. 여성을 결핍 혹은 부재로 규정해 온 젠더와 섹슈얼리티는 남성중심의 언어나 담론 체계를 통해 '생산' 된다. 따라서 생물학적인 성차가 아니라 그 육체를 하나의 기호로 읽는 것 즉, 육체에 젠더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 육체를 읽기 가능하게 만드는 언어와 재현체계¹⁾를 주목해 보아야 한다. 여성의 젠더와 섹슈얼리티는 가부장적인 민족 서사 속에서 남성이 정치적 대표성을 가진 주체로 표상되는 가운데 의미를 얻어왔다. 민족서사는 종종 여성을 회복되어야 할 성스러운 민족의 땅인 어머니로, 제국주의에 의해 더럽혀진 조국으로 은유하는 경향이 있다. 성스럽거나 더럽혀졌거나 간에 민족의 역사가 기입되는 공간이 된 육체는 자신의 언어를 강탈당할 수밖에 없다.²⁾ 표상이나 상징이 된다는 것은 타자로 호명

1) 김선아, 「여성주의자, 그 불순한 이름에 대하여」, 『여/성 이론』1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1999, p.58 참조.

2) 민족 담론 속에서 여성의 몸이 수난의 역사가 기입되는 공간으로 재현되는 방식의 문제점은 다음의 논문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김은실, 「민족담론과 여성:문화, 권력, 주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여성은 열등하며, 여성의 육체는 보호와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문화적 신념은 자연화된다.

민족 이야기가 희생자로서의 어머니나 누이의 육체에 민족의 현실을 기의하던 방식은 개발독재기에 오면 일정한 변화를 보인다. '양공주'는 1960-70년대의 민족주의 서사에서 민족의 식민화된 현실을 환기시키는 표상으로 위치지어진다. 김은실에 따르면 우리의 근대화에는 지향으로서의 서구화와 군사주의, 지켜져야 하는 전통, 민족주의, 가부장적 성별체계와 같은 여러 이념 체계가 혼재되어 있다. '국가 재건'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개된 박정희 정권의 조국근대화는 자본주의적 산업화, 북한에 대한 방위, 민족 정체성의 확립을 골자로 한 것이었다. 특히, 한국인이라는 동일한 민족 정체성의 확립은 경제 개발 과정에서 중요히 이데올로기였고, 이 민족 정체성이야말로 서구 지향의 근대화 프로젝트가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내는 슬한 사회관계의 갈등을 합리화하고 통합하고 또 반대자를 타자화하여 배제하는 수단이었다.⁴⁾ '양공주'가 탈식민 민족의 담론 속에서 위치지어진 것은 이러한 당대의 지배 이념 속에서다. 어머니나 누이가 아닌, 서구화와 근대성의 표상인 '양공주'로 이동된 시선은 서구에 깊이 매혹된 국가를 부인하고, 경제적 풍요로 인한 관능적 성과 무질서한 자유의 상상력을 억압함으로써 장애물없이 질주하려는 권력의 기획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는 1950년대 문학에서 '양공주'가 민족의 치욕스러운 현실의 기호만이 아닌 부르주아 남성의 부도덕한 성의 희생자, 당당한 생활인, 가부장제에 맞서는 주체적인 여성, 팜므파탈 등 다양하게 재현되는 것과 대조된다.⁵⁾

에 관한 비판적 읽기를 위하여, 『한국여성학』 제 10호, 1994./ 권명아, 「수난사 이야기로 다시 만들어진 민족 이야기」, 『여성 수난사 이야기와 파시즘의 젠더 정치학』, 『문학 속의 파시즘』(김철·신형기 외 지음), 삼인, 2001.

- 3) 이 글에서는, 학계에 기지촌 매매음 여성에 대한 합의된 호칭이 없는 이유로, 부득불 '양공주'라는 이름을 사용함을 밝혀둔다.
- 4) 김은실,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 논리와 가부장성』, 『우리 안의 파시즘』, 삼인, 2000, p.115.

민족주의는 제국에 맞서 국가를 방위한다는 점에서 저항담론이지만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여성 자신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소유로 정의함으로써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부인하는 한계를 갖는다. 비서구의 민족주의는 외세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혈연에 기반한 계보학적 유대, 대중적 동원, 언어, 풍습, 전통 등으로 민족에 대한 종족적 개념을 구성”(김은실)한다. 단일함에 대한 요청은 토착적인 것과 외래적인 것이 뒤섞이는 지점으로 ‘양공주’의 섹슈얼리티를 재현한다. 또한 유신체제기의 민족서사는 민족의 주체인 남성의 훼손된 주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시대적 강박 속에 ‘양공주’의 섹슈얼리티를 위치시킨다. 196-70년대에 쓰여진 소설⁶⁾들은 대체로 남성 서술자의 수치심, 분노, 고통, 부끄러움, 무력감의 정서와 함께 민족의 부정적 현실을 극복해가고자 하는 고통과 열망의 재현을 이루어낸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양공주’는 민족의 현실을 가리켜 보이는 부정적인 표상이 됨으로써 여성의 몸은 민족 남성의 소유물로 규정된다.

민족·민중 문학론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80년대에는 반미를 소재로 한 여러 편의 소설이 발표되지만, ‘양공주’가 재현의 중심에 놓인 경우는 강석경의 「밤과 요람」, 「낮과 꿈」, 박석수의 「철조망 속 휘파람」 연작, 윤정모의 『고삐』 등으로 희소하다. 이 시기는 ‘양공주’가 등장하는 작품의 수가 적어 문학 생산의 구조와 ‘양공주’ 재현의 관계를 발견해 내기 어렵다. 강석경의 「낮과 꿈」은 여성주의적 시선으로 ‘양공주’의 일상과 내면에 접근

5) 1950년대에 발표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강신재의 「관용」(51), 「해결책」(56), 「해방촌 가는길」(57), 김말봉의 「전략의 기록」(53), 한말숙의 「별빛 속의 계절」(56), 송병수의 「소리 킁」(57), 선우휘의 「깃발없는 기수」(59), 오상원의 「난영」(56), 「보수」(59). 50년대 소설의 양공주에 대한 논의는 김연숙의 논문(「양공주」가 재현하는 여성의 몸과 근대적 섹슈얼리티-1950~6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연구소 심포지움 자료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6) 이 시기에 양공주가 비중있는 인물로 등장하는 작품은 다음과 같다.-오상원의 「황선지대」(60), 정연희의 「천딸라 이야기」(60), 이범선의 「오발탄」(60), 오영수의 「안나의 유서」(63), 하근찬의 「왕릉과 주둔군」(63), 남정현의 「분지」(65), 박순녀의 「엘리제 抄」(65), 박완서의 「나무」(70), 조해일의 「아메리카」(72), 황석영의 「낙타누갈」(72), 천승세의 「황구의 비명」(73), 조정래의 「황토」(74), 「미운오리새끼」(78),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79).

하고 있어 민족 이야기 속의 '양공주' 형상화 방식과 일정한 차이를 보여 준다. 몸이 권력과 정체성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도라면 '양공주'의 섹슈얼리티는 성, 계급, 민족이라는 코드가 중첩되어 작동하는 지점을 가리켜 보인다. 전쟁의 참혹한 기억 속에 본격적으로 근대화가 추진되기 시작한 시대에서 '양공주'의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재현되는가에 대한 논의는 근대성과 여성의 관계, 한국문학의 재현체계의 성별성을 살펴볼 실마리가 될 것이다.

2. 뒤섞임에 대한 공포와 오염된 몸

모든 것을 파괴시켜 버리는 전쟁의 가치없는 폭력성은 훼손되지 않은 세계에 대한 향수와 동경을 극대화한다. 폭력과 죽음의 체험은 과거를 화해로웠던 모성적 시간으로 허구화하면서 붕괴된 세계의 회복을 긴급한 과제로 제시한다. 특히 타의에 의해 유기적 공동체를 파괴당한 나라들은 피압박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민족이라는 상상적 공동체의 경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 민족이라는 상상체로 설정되는 것은 외세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가부장적 공동체이고 이것은 유린되지 않은 순결한 몸으로 상징된다. 민족주의는 이 순결함의 상실을 은유적 동정의 상실이라는 비유로 애도해왔다.” 외래적인 것의 침투로 인해 토착적인 것의 고정된 경계의 붕괴는 민족주의 서사에서 뒤섞임에 대한 공포로 표현된다. '양공주'의 섹슈얼리티가 부정적으로 재현되는 것은 훼손되지 않은 어머니 조국에 대한 열망때문이다.

「왕릉과 주둔군」에서 여성의 몸은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재생산하는 도구로 간주된다. 이 작품의 주인공 박첨지는 자랑스런 왕족의 혈통을 물려주는 게 유일한 꿈인 봉건적 가부장이다. 아들이 없는 그는 외손자를 보아

7) 최정무, 「민족과 여성:혁명의 주변」, 『실천문학』제 69호, 실천문학사, 2003, p.26.

대를 잇고자 한다. 그러나 이방인 주둔군과 '양공주'가 벌이는 문란한 성에 이끌린 금례는 마을을 떠나 '양공주'가 된다. 여기서 외래 문화는 성의 문란으로, 이민족의 침투는 여성의 정조 상실로 표상된다. 각성된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불안, 외래 문화의 유입에 대한 공포는 금례가 혼혈아를 낳아 귀향하는 것으로 실제화된다. 순수한 단일 혈통의 깨어짐, 불순물의 침입은 '양공주'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민족담론의 공포를 보여준다. 혼혈아 철이가 신성한 왕릉에 올라 노란 눈으로 생긱거리는 장면은 박첨지의 죽음과 겹쳐짐으로써 서구의 유입으로 인한 성적 문란에 대한 혐오와 피의 뒤섞임에 대한 공포를 극대화하며, 봉건적 가부장제의 몰락을 조상케 한다. 이로써 '양공주'의 섹슈얼리티는 혼돈, 불결, 오염으로 재현된다.

「엘리제 초(抄)」역시 기지촌, 혼혈아 엘리제, '양공주'의 섹슈얼리티를 통해 외래적인 것과 뒤섞여 버림으로써 상실한 민족의 순결성을 애도한다. 이야기는 남성 주인공인 영배의 눈으로 향수와 재생의 원천으로서의 '고향'이 사라진 현실을 현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전쟁의 비통과 절망을 보상해 줄 듯 영배가 우연히 들른 시골은 폭격에 다치지 않은 초가집들과 텃밭에 콩을 심고 감을 매고 있는 처녀가 있는, 훼손되지 않은 곳이다. 그러나 일년 후 정착을 결심하고 찾아 든 땅은 이국병사의 미시시피로, 콩밭 매던 처녀는 병사의 향수를 달래주는 '양공주'가 되어 있다. 이국 병사와 '양공주'가 달러와 성을 매매하는 기지촌의 거리는 벌거벗은 아담과 이브가 춘화도로 현신한 연옥으로 이미지화된다. 기지촌은 외래문화와 토착문화가 뒤섞인 무질서의 공간이다. 혼혈아 엘리제와 양녀를 닮은 '양공주'는 정체성 부재의 잠종성의 표상이다. 특히 "캘린더 금발의 양녀(洋女)의 나체에 비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양공주들의 "풍만한 육체"는 과잉의 섹슈얼리티와 함께 민족·전통적인 여성성의 경계를 벗어난다. '양공주'의 섹슈얼리티는 민족적 정체성이 불분명해진 오염된 현실의 표상이다.

이때 오염된 민족의 현재를 우울하게 애도하는 것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이다. 왜냐하면 남성은 몸으로 표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남성이 사유와 애도의 권한을 부여받지만 여성이 훼손과 상실의 은유인 것처럼 기지촌을 부

정하고 거역할 수 있는 주체는 남성이다. 기지촌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영배는 외객이며 관찰자이다. 이로써 남녀의 권력관계는 형성되어, 영배는 '양공주'들의 몸을 안지만 마음을 주지 않으며, '양공주'들은 경쟁적으로 영배를 유혹함으로써 고독한 현재에서 구원받고자 한다. 마담은 자신의 풍만한 몸을 내보여 유혹하면서도 라일락꽃을 보며 눈물을 흘렸던 소녀시절을 영배에게 각인시키려 한다. 이러한 '양공주'의 모습은 민족의 경계 안에서 배제된 자의 존재 증명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그러나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영배에게 '양공주'의 몸은 "아무 의미도 없는" "캘린더의 양녀의 나체 같은 것"이어서 관음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훼손된 민족의 현실은「황토」에서 혈통의 순수성이 파괴된 가족을 통해 표상된다. 이 작품은 여성의 몸에 수난으로서의 역사를 기입한다. 일제 치하에서는 일본인의 첩으로, 해방공간에서는 좌파민족주의자의 아내로, 미군정기에는 프랜더스의 첩으로 사는 점례의 몸은 역사의 국면마다 매번 소유자가 바뀌는 민족의 파란한 궤적을 상징한다. 점례의, 각각의 인종이 다른 아이들 중 첫째 태수와 셋째 동익은 대립과 반목을 일삼으면서 가족을 불화에 빠뜨린다. 이 작품은 뒤섞임에 대한 공포를 혈연을 정신화, 본질화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자식들의 성품은 각각의 아버지 국적에 대한 호오(好惡)의 민족 감정을 내면한다. 둘째 딸 세연이 은혜하고 정의로운 성격의 소유자인 것은 그녀 속에 아버지의 혈액이 흐르고 있음의 증거이다. 세연이 딸임에도 불구하고 일순위로 유산을 상속 받는 것은 혈통이 최고 선이기 때문이다. 점례가 정조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숭고한 여성으로 긍정될 수 있는 것 역시 가부장제의 혈통을 지켜서이다. 죽음에 처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일본인의 첩이 되고, 동족 남편인 박항구의 핏줄을 지키기 위해 프랜더스의 첩이 된 금례의 몸은 가부장적 국가와 가족 속에 종속되어 있다.

아버지의 혈통이 민족 공동체를 대표하는 발상법 속에서 여성은 사회적 행위의 주체자가 될 수 없다. "예쁜 얼굴을 지키는 주인이 없"으면 "여편네고 딸자식이고 다 빼앗"긴다는 등장인물의 말은 이 작품의 진정한 주체라 할만하다. 여성의 몸을 민족 남성의 자산으로 규정하는 이러한 방식은 점

례의 몸을 거칠고 단선적인 가부장적 서사가 일방통행하는 배경이 되게 한다. 점례는 인고와 순응의 자세로 일관되게 시련을 받아들이는 평면적 인물로서 폭력적인 서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돕는다. 그녀는 이방의 가부장제와 내국의 가부장제 속에서 교환되며, 제 몸의 소유권을 결코 주장하지 않는다. 가부장적 서사의 사디즘적 관음증은 외세의 부정성 폭로라는 그럴듯한 미명 하에 여성의 몸을 능욕한다. 이를 증명해 주는 것이 점례가 강간당하는 장면을 관음하는 서술자의 시선이다. 프랜더스가 점례를 겁탈하기 전에 서술자는 사위하는 점례의 몸을 감싸는 따뜻한 물줄기와 남편의 품에 대한 그리움으로 아릿해진 기분을 서술함으로써 점례의 몸을 에로틱하게 현시하지만 강간의 고통은 “아물거리는 호린 의식”으로 추상화한다. 외세를 변태성욕자나, 성욕과다자로 표상하는 방식의 조악함과 함께 폭로라기 보다는 관음에 가까운 서술 전략은 민족주의 서사 속에서 여성의 몸이 재식민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몸에 대한 남성 독자의 소유의 욕망을 한껏 자극하는 이러한 서술은 타민족에 대한 분노와 거부 속에 동족 여성의 몸에 대한 소유의 욕망을 강박적으로 새겨넣는다.

3. 남성 주체성 회복의 서사 속의 '양공주'

1970년대에는 정권에 맞선 사회적, 정치적 저항들이 숱하게 존재했지만, 근대화란 언설은 강력한 지향적 가치를 지님으로써 개인을 국가담론 안으로 소구하였다. 과거와의 단절, 미래지향성, 변화의 추구로 요약되는 발전의 이데올로기는 민족/국가를 중흥시켜 신식민지였던 가난한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는 국가적 목표를 개인의 사명이 되게 한다. 특히 남성은 산업 발달과 민족의 수호자로 규정됨으로써 근대화를 이끌어 나갈 주체가 된다.”

8) 개발독재기의 근대와 프로젝트의 남성중심적 성격과 주체문제는 김은실(「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 논리와 가부장성」, 앞의 책)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이 시기에 발표된 작품의 남성 주인공들은 수치심, 분노, 고통, 부끄러움, 무력감과 같은 정서의 과잉상태를 보여준다. 남자답지 못한 정서의 과잉은 강압적인 발전 이데올로기에 대한 무자각적인 불만과 '남성적인 것'에 미달되는 자아에 대한 불안의 징후이다. '양공주'의 섹슈얼리티는 '불만'과 '불안'으로 드러난 남성의 균열된 주체성이 봉합되는 매개이다.

「황구의 비명」은 무력한 남성이 민족의 식민화된 현주소를 자각함으로써 자신의 주체성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서사화한다. “깡마른 허벅지”, “허연 살비듬”, “청송맞은 하품”의 처량한 주인공의 형상은 거칠고 사나운 속물로 재현된 아내와 대조되며 무기력한 현실부적응자의 이미지를 전달한다. 그러나 담비 킴에게 빛을 받아오라는 아내의 재촉에 못이겨 기지촌 용주골의 문지방을 넘으며 그는 남성다움의 주체 위치를 구축하고 현실과의 불화도 종결짓는다. 용주골은 남성다움의 회복을 자극하는 서러운 민족 현실의 공간이다. 왜냐하면 기지촌은 민족의 여자들이 미군 병사에게 능욕당하는 수탈의 땅으로서 남성의 무능함에 대한 자각을 수치스럽게 일깨우기 때문이다. “밀도 끝도 없는 설움의 벼랑”, “성급한 아픔”, “슬픔의 자질구레한 웅어리”는 결손된 자기에 대한 자의식의 징후이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거대한 체구의 수캐와 자그마한 토종견 암개의 “처절한 비명” 속의 교미나, 여인숙 신발대 위의 “하얀 고무신 겹으로 두 뺨이 다 되는 위커” 등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로 표상된다. 약소국의 처지를 토종견 암개·양공주'의 수난으로 유비함으로써 남성 인물은 민족 현실에 대한 나름의 인식을 확보한다. 이로써 지도를 갖게 됨으로써 우월한 자가 된 남성에 의해, 담비 킴의 섹슈얼리티는 질척거리는 “공사장의 하수도”로, “메쓰꺼움”을 불러일으키는 “부조화”로 판정받는다. 담비 킴에게 전세계약금을 주며 “고향 앞으로 가”를 외치는 그는 탈식민화라는 신성한 사명의 주체이지만 '양공주'는 병균처럼 감시되고 격퇴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회복된 그는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공간”골목 안을 채운 아이들의 합성, 개구쟁이 자식을 부르러 나온 머리가 부송한 아낙의 화장하지 않은 얼굴, 정결한 여인의 긴치마, 조강지처의 촌스런 팔자걸음”-의 소중함을 받

견한다. 이러한 일상의 그림은 드센 아내와 무기력한 가장이라는 실제 현실을 위조한 것으로, 근대 여성들에게 전통적이고 순응적인 여성성으로의 재귀가 명령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지촌 공간이 남성성 회복을 추동하는 부정적 현실로 작용하는 가운데 '양공주'들의 향의는 목살된다. '양공주'들은 회롱 섞인 유혹으로 그를 냉소한다. 특히 '똥개'로 전략한 담비 킴은 "임질, 바이도꾸, 굼바리쌍두꾼, 이런 거 터가 세서 못 살아", "내 풀냄비 그렇게 더럽지 않아요"라며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타자화에 저항한다. 또한 "유산이라고는 씨팔놈의 이것뿐인데"라는 말로써 매춘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고향의 가난, 성억압의 현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다. 그러나 "황구는 황구끼리"를 외치며, 고향 앞으로 가라고 명령하는 사육사-남성의 자기도취 속에서 '양공주'의 저항은 무시된다.

중편소설「아메리카」는 기지촌 '양공주'의 생활상, 미군에 의한 기지촌 관리와 군표 소동으로 나타나는 미군의 권력 행사 등의 에피소드를 통해 기지촌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민족 현실의 발견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구축해가는 남성의 담파 속에서 '양공주'는 여타의 작품에서처럼 역사의 상징으로 수동화된다. 또한 '양공주'의 몸을 팔아서라도 살아남아야 했던 아버지들에 대한 연민과 연대는 권력의 중심에 있는 억압적이고 타락한 아버지의 부정성을 은폐하는 방식으로도 작용한다.

미군 '홀'을 운영하는 당숙을 찾아 기지촌에 들어온 주인공은 부실시공으로 아파트가 무너져 육친의 아버지를, 군제대와 함께 정신의 아버지를 잃은 상태이다. 아버지 없는 아들은 기지촌을 "온갖 일락(逸樂)"이 깃든 공간으로 여기며 '양공주'들과의 지불없는 섹스에 탐닉한다. 그는 발전이나 진보를 향한 성장 의지보다는 젊음과 생을 낭비하고 싶은 자이다. 그에게 군대는 억압의 기억이며, 대학은 백치들의 장소이다. 엄격한 아버지에 대한 냉소, 부실시공된 아파트로 인한 가족의 죽음은 현실의 부정성을 환기 시키며 지주없이 훼손된 그의 내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는 '양공주' 기

옥이 흑인에게 살해당하자, 그녀의 죽음을 방치했다는 자괴감에 휩싸이면 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는다. 섹스볼능, 일라이 아닌 설움의 공간으로서의 기지촌 인식, 기지촌의 외객이 될 수 없게 하는 민족의식의 생성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쾌락과 무질서를 탐하던 방종한 자아가 교정되고 있음의 증거다.

'양공주'의 섹슈얼리티는 탈식민적 남성주체가 구축되는 통과 의례의 장소이다. 기옥의 죽음으로 인해 식민화된 현실은 죽음의 공간으로 유비되며 새로운 자아의 생성을 요청한다. 무덤의 현실은 자기 발견을 재촉하고 '아버지'와의 연대의 계기를 주선한다. 그는 '양공주'들의 무덤가를 걷는 자신을 "커다란 미아"에 비유함으로써 아버지의 품에서 좀더 양육될 필요성을 자인한다. 미사가 된 그의 모습에는 "경충한 키, 검은 피부, 고등학교 교복을 단정히 입고 있던" '양공주'의 아들이 겹쳐져 있다. 그는 민족을 정체성이 훼손된 혼혈의 국가로, 스스로를 길 잃은 혼혈 아이로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몸 파는 누이들의 몸을 욕망해 온 자로써 그는 무덤 속 "잠들어 누운 여자에게 창피라도 당한" 사람처럼 부끄럽기만하다. 수치심의 늪 속에 빠진 채, 균열된 남성성으로 인해 진통 중인 그를 구조해 내는 것은 새로운 아버지인 당숙이다.

유례없는 홍수가 퍼붓는 재난 속에서 낭숙은 시독한 홍수 밖에서도 끝내 목숨을 건졌던 젊은 날의 체험을 들려주며, 주인공을 위로하고 격려한다.

".....사실 사람처럼 끈질기게 살아 남아 온 동물이 어디 있겠니? 난 사람이라는 동물의 장래를 믿는다. 최소한 어떤 경우에도 멸종해버리진 않으리라는 걸 믿는다. 그렇게 믿구 나두 아직 살아 남아 왔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죽어 간, 얼핏 보기에 절망 이외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쉬웠던 시대들을 겪어 오면서, 물론 용기 있게 죽음을 맞아들인 사람들을 나는 존경한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천하게 비겁하게 살아 남았다고 해야 옳겠지. 하지만 그렇게 살아 남은 사람들의 몫두 있다구 생각한다. 뭐라고 할까.....아마 ㄷ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 온 사람들이겠지."

당숙의 말은 수치스러움에 대한 감각보다도 생존의 욕구가 더욱 절박했던 민중의 역사를 옹호하며, 기지촌을 오염의 공간으로 규정하고 멸시하는 시선에 저항한다. '천하게 비겁하게' 살아남았지만, 그것도 삶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당숙의 말은 기지촌 사람들의 절절한 체험에서 우리나라의 당당한 항의이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적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음에도 병군이거나 이물질로 모욕당해온 기지촌은 민족의 알레고리이다. 그러나 기지촌의 역사는 남성의 체험을 통해 사유되고 있어, 기지촌 내부의 식민지라 할만한 '양공주들'의 젠더 체험은 침묵된다. 남성동성간의 연대 속에서 '양공주'는 무력하게 죽거나, 가족에게 착취당하며, 화폐에 집착하고, 내국 남자와의 소통을 갈구하는 수동적·즉물적 존재로 재현되기 때문이다. 또한 당숙, 당숙모, '양공주'는 갈등없이 유사 가족관계로 재현되며, 사업가 남성과 노동자 창녀의 계층적 차이를 은폐한다. '양공주'의 현실은 아버지는 누이의 몸을 팔고, 아들은 몸파는 누이의 몸을 욕망하며 살아온 수치스러운 역사를 봉합해내기 위해 말해지지 않는 것이다. 또한 비록 일제때는 국경을 넘나들며 아편 장사를, 지금은 미군을 상대로 '홀'을 운영하지만 당숙은 개척정신이 강하고 합리적인 부르주아 사업가의 모습을 취하고 있어 진취적인 산업전사로서의 남성성 획득이라는 당대의 이념에 부합된다.

4. 동맹의 침상 속의 '양공주'

'양공주'를 '징후'나 '표상'으로 재현할 때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민족 남성의 소유로 규정됨으로써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부정하는 효과를 갖는다. 민족주의 담론에서 '양공주'는 여러 남성들 사이를 경계없이 떠도는 기표가 되고 전쟁, 분단, 냉전체제, 서구화의 외양을 띤 근대화에 대한 불안감을 환기시키고, 서구적인 것에 매혹되거나 종속된 남성의 부인과 투사가 이루어지는 타자다." 강석경의 「밤과 요람」(83), 「낮과 꿈」(89)은 이러한 지배적인 재현방식을 벗어나 기지촌 여성의 일상과 내면에 가까이 간

유일한 작품이다. 이야기는 온갖 물신으로 치장된 여성의 육체와 더더욱 비천한 여성 섹슈얼리티라는 합의를 벗어나 '양공주'를 제국주의적인 군사 매춘과 이에 공모하는 신식민지의 가부장적 질서에 의해 여성들이 이중으로 착취받고 재식민화되는 존재로 포착한다.¹⁰⁾

「낮과 꿈」은 '양공주' '백'과 백인 병사 오브튼의 연애담을 중심서사로 놓는 가운데 기지촌 여성들의 일상과 내면을 고단한 인생 이력과 함께 담아낸다. 주인공 '백'의 지속적인 사랑에 대한 욕망은 순정과 위악 그리고 지나친 쾌활함과 극단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황폐한 내면을 통해 재현됨으로써 희생자나 타락자라는 '양공주'형상화의 도식을 벗어난다. '백'이 외의 '양공주'들 역시 사랑과 소통에 대한 갈망, 세상과 관계 속에 뿌리내리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주체로써 권위적인 시선 속에 비천한 존재로 점령되기를 거부한다. 특히, 감성적인 인물인 '백'과 바람둥이 오브튼의 관계는 매혹-연애-이별-재결합-이별이라는 구도를 취해 매매음 관계로만 규정되지 않는다. 오브튼을 붙잡아두기 위한 백의 위장된 자살 사건, 유희과 질투, 애착과 상처 등은 사랑에 대한 갈망과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 속에 불안하게 동요하는 여성형 연애담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작품은 연애서사 가운데 '양공주'미라와 기순의 죽음을 겹쳐 놓음으로써 '백'의 사랑이 온전한 연애남 안에 통합될 수 없는 복잡한 지점을 그려낸다.

미라와 기순의 '존재하고자 하는 욕구' 역시 사랑과 결혼에 대한 갈망으로 드러난다. 사랑과 결혼은 강고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존재'를 얻는 유일한 방식이다. 미라는 몸을 팔아 기동서방을 부양하며, 레이스 뜨는 여자인 서른 넷의 기순은 한국을 벗어나기 위해 국제 결혼을 욕망한다. 사랑과 결혼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떠 있는 섬"과도 같은 국적불명의, 한국 여성도 미국 여성도 아닌 정체성 부재의 기지촌 '양공주'들이 세상에

9) 주유신, 「〈자유부인〉과 〈지옥화〉: 1950년대 근대성과 매혹의 기표로서의 여성 섹슈얼리티」, 『한국영화와 근대성』, 소도, 2001, p.30-1.

10) 주유신, 앞의 책 p.37.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구원의 동앗줄로 소망된다. 국적, 인종, 성별 정체성이 배타적으로 경계지어지는 가부장적 민족 국가 안에서 ‘양공주’는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뿌리가 없는 섬”이기 때문이다. 해일 속에 표류하는 섬의 운명 속에 역사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섬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미라와 순자의 비극적 죽음이 보여주듯이 섬은 ‘양공주’들을 떠날 수 없게 한다. 이 섬은 사회적으로는 불명예지만 국가안보라는 목적 아래 미군을 주둔시키기 위해 ‘아우’가 지불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제국의 가부장제와 한국의 가부장제의 ‘동맹 속의 섹스’¹¹⁾는 ‘양공주’의 섹슈얼리티를 이중으로 식민화한다.

이 작품은 ‘양공주’의 죽음을 제국의 부도덕을 표상하는 방식으로 서사화함으로써 내부의 부도덕을 은폐하는, 가부장적 서사의 알리바이 전략을 넘어선다. 미라가 이국병사가 아닌 기동서방에게 “그 년은 양놈 찌꺼기만 내게 갖다 주었다”는 이유로 살해당하고, 식모였던 순자는 주인에게 강간당해 두 아이를 낳고도 주인집의 노예로 살다 기지촌으로 흘러왔기 때문이다. 이로써 ‘양공주’의 매춘은 민족, 성, 계급이라는 중첩된 코드 속에 위치지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다중의 코드들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무엇이 더 우세한지에 대해 이 작품은 다소 불분명한 입장을 보여준다. 이는 백인 미라의 살인자에게 “죄는 밋지만 자존심은 있네”라고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은 ‘양공주’의 매춘을 민족의 열등한 지위 탓으로 돌림으로써 민족 내 계급 모순과 성억압을 부차적인 문제가 되게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작품은 한국 ‘양공주’와 소통을 원하는 흑인 레즈비언 병사 바바라를 등장시킴으로써 백인/유색인종, 남성/여성, 이성애/동성애 등의 위계적 이분법 속에 타자화된 하위주체들의 위치를 부각시킨다. 한국의 ‘양공주’들은 동족 남성에 대한 분노의 경험을 통해 흑인남성을 거부하는 바바라에 공감함으로써 인종과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 가부장제의 하위주체들으로써 동일화된다.

11) 캐서린 H.S. 문, 『동맹 속의 섹스』, 삼인, 2003.

그러나 국제결혼을 앞둔 순자의 죽음으로 자매들의 결합은 불가능해진다. 순자의 죽음은 논란의 대상일 수 있다. 왜냐하면 항거하는 인물의 죽음은 인물의 반항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가부장적 질서를 인준해주는 효과를 갖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의 결합 불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레즈비언 정체성을 갖지 못한 순자에게 바바라는 애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탈출하려는 인물의 욕망은 기지촌의 비극적 현실을 좀더 엄정하게 드러내려는 작가의 의도 속에 제압된다. 여기에는 제국의 군대매춘을 가부장제와 민족 문제가 착종되어 작용하는 문제로 보려는 작가의 고민이 담겨 있다. '양공주'는 한국여자도 미국여자도 아니지만 또 한국여자이면서 미국여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가부장제만으로도 민족문제만으로도 제국주의 군대 매춘문제를 풀 수 없다는 시각은 '양공주'의 섹슈얼리티가 제기하는 문제의 복잡한 국면을 보여준다.

김현숙¹²⁾은 강석경이 기지촌 여성을 다루는 방식은 여성을 희생된 성노동자, 곧 한국의 미국에 대한 종속을 상징하는 공간표시물이나 소재로 상징함으로써 “그들(‘양공주’-필자) 자신의 행위성과 주체성을 말살시켰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한국의 운동권들이 “군대 매춘 문제를 오로지 미제국주의와 군국주의라는 시각에서만 분석하고, 미국인들에게 기지촌에서 일하는 한국 여성에 대한 착취의 책임을 묻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해내려는 목적에 치우침으로써 발생한 해석의 오류이다. '양공주'가 섬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여성 서술자 자신이 스스로의 주체 위치를 객관화하는 가운데 얻어진 성찰이어서 가부장적 서사의 여성 대상화 방식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김현숙의 지적대로 제국주의 군대 매춘이, 한국인들을 미국이라는 억압자의 희생자라는 단일화된 주체로 범주화함으로써 민족 내부의 이질적인 차이를 은폐 혹

12) 김현숙, 「민족의 상징, '양공주': 진보적 또는 대중 문화 텍스트 속의 노동계급 여성의 재현」, 『위험한 여성』(일레인 김·최정무 편저/박은미 옮김), 삼인, 2001.

은 억압할 수 있다. 그러나 '양공주'에 대한 착취가 젠더의 문제로만 초점화될 때 제국주의의 문제는 간과될 위험이 있다. 이 작품은 이러한 복잡하고도 난해한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인 '백'에게로 다시 돌아가 보자. 미라와 순자의 죽음은 '백'으로 하여금 순정을 버리고 위악을 택하게 한다. 그녀는 오브톤의 본국 귀대 날짜가 가까워오자 그의 물건을 훔치고, 구타하는 그를 경찰에 고발하며, 서신교환의 제의를 뿌리치고 돈을 요구한다. 스스로를 비즈니스 걸로, 둘 사이를 매매음 관계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반어적인 "사랑의 방법"인 동시에, '백'이 한낱의 몽상에서 깨어났음을 의미한다. '백'은 미라의 죽음을 계기로 미군의 원조물자에 매혹되었던 기억을 떠올리고, 가난에 대한 보상심리로 미국을 선망해 왔음을 성찰한다. 이로써 이야기는 '백'의 자기발견담의 성격을 갖는다. 떠나갈 오브톤에게 싸움을 걸어 때리고 맞는 백의 모습은 황폐한 나날을 버티게 해준 사랑의 몽상이 깨지고 난 후의 고통과 혼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자신의 주체 위치를 자각한 '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작품은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다. '백'은 제국과 민족의 동맹의 섹스지대 속에서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는 동시에 모두에게 속해 있는 자기의 위치를 자각할 뿐이다.

5. '양공주'와 근대 여성의 섹슈얼리티

한 남근주의자의 정신분열적 모노드라마인 남정현의 『분지』에서 주인공의, 미군장교의 아내 강간은 남성다움의 구축이 제국이라는 지배자를 모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저항을 통한 주체 세우기가 왜 타자에 대한 점유를 경유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질문하게 한다. 주인공의, " '우월한 백인' 여성의 몸"을 소유했다는 환희가 보여주듯이 '강간'은 미국의 경제적·정치적 원조 속에서 자존감을 훼손당해오기도 실상 미국적인 것에 매혹되어버린 자의 자기부인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수난의 민족

체험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하고도 엄숙한 탈식민의 과제와 결합해 정직한 자기대면 이전에 자기 부인의 알리바이 만들기에 몰두하게 한다. 이때 서구를 모방한 '양공주'는 서구에 매혹된 당대 남성의 불안과 죄의식이 투사되는 장소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황석영의 「낙타누갈」,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 등 몇몇 작품을 제외하고 개발독재기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50년대 문학에서와 달리 '양공주'의 화려하게 치장된 육체가 가져다 줄법한 성적 호기심조차 말하지 않는다. 소설이 묘사의 문학이며, 욕망과 모랄이 충돌하는 지점을 비추어내는 장르라고 할 때 침묵은 고의적인 삭제라고도 볼 수 있다. '양공주'가 가부장제 서사에서 연민 이전에 부정적 표상이 되고, 남성주체성 회복의 매개로 작용하는 것은 창녀의 섹슈얼리티가 남성에게 가져다 주는 불안과 관련이 있다. 창녀는 "여성의 잠재적인 익명성을 가시적으로 일깨우는 존재이자 가족적·공동체적인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여성 성욕의 어두운 심연을 표상"¹³⁾한다. 화장과 패션으로 자신의 육체를 섹슈얼하게 치장한 창녀는 비록 비천하지만 여성의 성욕을 가시화한다. 따라서 '양공주'의 섹슈얼한 육체에 대한 침묵은 휘장을 벗은 여성의 성이 불러일으키는 가부장제의 두려움의 표현일 수도 있다. 국가재건의 근대화는 한 여성의 성과 자아의 지배자인 가부장 남성 주체들이 연대한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가부장제 서사는 여성의 몸을 민족 현실이 은유되는 지도로 상징함으로써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부인한다. 주체가 성과 권력 그리고 독립적인 자아의 소유자라고 할 때 순결 콤플렉스와 같은 성적 억압은 근대 여성들의 사회 참여, 성장과 자기 발견을 어렵게 하는 막강한 이데올로기 장치이다. 부정적인 여성이 대체로 성적으로 각성된 여성으로 표상되고, 남성 주체성의 결손됨과 회복이 여성의 성적 육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개발독재기 문학의 특징이다. 남성적인 권위를 위협하는 세력은 민족에 해를 끼친다는 생각은 전상국의 「아베의 가족」에서처럼 무력

13) 리타 펠스키, 『근대성과 페미니즘』(김영찬·심진경 옮김), 거름, 1998, p.47.

감과 분노에 시달리는 남성집단이 섹슈얼한 치장의 여성을 창녀로 규정하며, 강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민족 이야기 속에 재현된 '양공주'의 섹슈얼리티는 탈식민화가 국가 총위에서 작동했던 개발독재기 문학의 가부장성에 대한 연구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 필자 :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강사

〈참고문헌〉

- 권명아, 「수난사 이야기로 다시 만들어진 민족 이야기」, 『여성 수난사 이야기와 파시즘의 젠더 정치학』, 『문학 속의 파시즘』(김철·신형기 외 지음), 삼인, 2001.
- 김선아, 「여성주의자, 그 불순한 이름에 대하여」, 『여/성 이론』1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1999
- 김연숙, 「'양공주'가 재현하는 여성의 몸과 근대적 섹슈얼리티-1950~6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연구소 심포지움 자료집, 2002.
- 김은실, 「민족담론과 여성:문화, 권력, 주체에 관한 비판적 읽기를 위하여」, 『한국여성학』 제 10호, 1994.
- 김은실,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 논리와 가부장성」, 『우리 안의 파시즘』, 삼인, 2000.
- 김현숙, 「민족의 상징, '양공주':진보적 또는 대중 문화 텍스트 속의 노동계급 여성의 재현」, 『위험한 여성』(일레인 김·최정무 편저/박은미 옮김), 삼인, 2001.
- 주유신, 「〈자유부인〉과 〈지옥화〉:1950년대 근대성과 매혹의 기표로서의 여성 섹슈얼리티」, 『한국영화와 근대성』, 소도, 2001.
- 최정무, 「민족과 여성:혁명의 주변」, 『실천문학』제 69호, 실천문학사, 2003.
- 리타 펠스키, 『근대성과 페미니즘』(김영찬·심진경 옮김), 거름, 1998
- 캐서린 H.S. 문, 『동맹 속의 섹스』, 삼인, 2003.

Abstract

The sanctified mission of colonial reconciliation
and sexuality of the 'Yangkongju'

kim, eun ha

With gender of the woman and sexuality got meaning which is at the symbol with the subject where the male has a political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 from patriarch nation narrative inside it came. The nation narration the characteristic the woman must be recovered often with the mother who is a ground of the be nation, by a imperialism compared to metaphor anger is a tendency which it does in the tongue position fatherland. Characteristic it is, or, the historian of the nation the flesh where the space where it is entered is thick only it could not be extorted the language of oneself the for it comes to make unclean.

The mother or the sister actuality of the nation the flag the method due to after making war, is visible a schedule one change in development dictatorship time. The 'Yangkongju' in 1960-70's it gives from development dictatorship flag nationalism narrative, actuality which has become colonial anger of the nation circulation location it comes to come at the ticket which it makes. Is not the mother or the sister, from the anger and modern time good intention ticket merchant the 'Yangkongju' the gaze which moves mainly depth disapproves the nation which is fascinated in the West Europe, Economic wind important position the functional result

which is caused by imaginative power of the freedom which is disordered obstacle it runs fast with hundred million pressure boxes without from power it is not free.

This time from the novel which is announced the 'Yangkongju' attention Sexuality the mote is caused by with permeation of the important thing, Collapse of the guard which the native thing is fixed, it is mixed it symbolizes the fear regarding. Also the 'Yangkongju' attention Sexuality the mote the shame core, anger and pain, is shy, with feeling of helplessness it is a mediation where the independence which the male who in excessive condition of same emotion is expressed cracks is sutured. But 'Sukkyung Kang-the novelist-'s 『night and the cradle』, 『the daytime and dream』 embellishment with the flesh of the woman whom it props woman's sexuality who is more and more obscure escape the box which is a mote with all 'Yangkongju' 'with imperialism military prostitution by the patriarch order of the colony which offers for public subscription hereupon the women exploitation receive with duplication and in the existence which becomes talent and folk tale they are catching.

It is at the symbol with the woman where the negation woman with transfer awakes with record, it becomes loss of male independence with it recovers, the secondary cause against the record independence of the woman leading and becoming accomplished It is a feature of dog dictatorship flag literature. The 'Yangkongju's Sexuality who is reappeared in nation talk inside the mote the patriarch frost of the development dictatorship flag literature

where the colonial anger which will burn operates from above national layer hold does a focus location from the research against.

key word : The 'Yangkongju', sexuality and nationalism narration

▶ 위 논문은 8월 30일 투고 완료, 9월 30일 심사 완료, 11월 15일 게재 확정

